

# China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원형사례연구

## 해외연수결과보고서



# Taiwan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문화재단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 문화원형 사례연구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주최/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경기도문화재단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 문화원형 사례연구 해외연수결과보고서

목차 Contents

- 04 프롤로그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 12 Part 01  
전체연수개요 및 주요일정표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연수 개요
- 18 Part 02  
주요방문국가 정보 및 주요연수지  
타이완(대만)의 일반정보  
중국 상하이/항저우 일반정보
- 41 Part 3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례 탐방  
▶ 대만 고궁박물관 / 총렬사  
▶ 중국 오산 성황각 / 성황묘, 청하방옛거리  
▶ 서호 / 화향관어  
▶ 야류해상국립공원
- 49 Part 4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노력들  
▶ 대만 타이베이 화산문화지구  
▶ 대만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촌  
▶ 중국 상해 옛거리 그리고 예원

- ▶ 대만 용산사와 화시지에 야시장 문화
- ▶ 저우편

60

### Part 5

문화원형의 관광상품화,  
공연콘텐츠화 사례를 통한  
지역문화원형 활용방안 모색

- ▶ 대만레시피 \_ 대만의 음식문화
- ▶ 중국 항저우 송성가무쇼
- ▶ 동방명주와 상하이역사박물관 그리고 외탄 야경
- ▶ 주가각

71

### Part 6

특별한 기억

- ▶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 현장을 가다!  
중국 상하이 홍구공원(현 루쉰공원)에서의 하루

74

### Part 7

함께 한 기록들

78

### Part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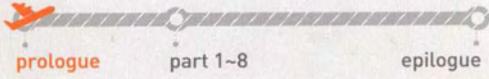
함께 한 사람들

81

에필로그

이제 다시 지역이다!

- ▶ 연수 합평회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원형사례연구  
해외연수결과보고서



prologue

---

#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

문화원형사례연구를 통한  
지역문화에의 적용가능성 모색



##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프로크루스테스는 '늘이는 자' 또는 '두드려서 펴는 자'를 뜻하며 폴리페몬(Polypemon) 또는 다마스테스(Damastes)라고도 한다.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 버렸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자신이 저지르던 악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및 '프로크루스테스 체계(Procrustean method)'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여행과 관광은 다르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travel'의 어원은 '고통', '고난'을 뜻하는 'travail'이다. 여행이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쾌락이나 오락으로 여겨지게 된 건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에 이르러서다. 인간은 과거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nomad)의 시대를 거쳐 정착 생



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맞아 다시 유목민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여행은 일상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장자(B.C 369~289)는 '성심(成心)', 즉 '구성된 마음'이라는 편견을 문제 삼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장자가 '성심'을 문제 삼는 이유는 특정한

성심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 즉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초자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공동체 규칙을 배우면서 자라났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국의 공동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마음으로 성심을 가지



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치를 먹고, 마늘을 먹고, 한국어를 쓰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산다. 이것이 바로 성심의 작용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어느 날 미국 중산층 가정의 정원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툭툭 치는 미국 어린이를 보았다고 하자. 이것은 미국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버릇없고 예의 없는 놈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심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사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공동체에 태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면화된 '성심'은 그 공동체에서 살 때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 가거나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성심을 특정한 공동체의 흔적이라고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심을 초차아(Superego)로 삼아 타자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다.<sup>1)</sup>

즉,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구성된 마음, 즉 성심(成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은 인간의 독선적 아집을 깬다”는 말은 여행의 장점을 말해주는 오랜 속설이다.

“내가 로마 땅을 밟은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일이자 내 삶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

1) 장자&노자 《도에 판지결기》(김영사 강신주 지음 p25) 참조

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은 여행의 위대함을 웅변해 주는 증언이다.

혹자는 여행이라는 것의 ‘파노라마식 관계’<sup>2)</sup>라는 한계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행이 가지는 ‘직접 경험’의 권위가 가지는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타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다른 역사, 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그 불편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시각은 더 비약적으로 확장된다.

때문에 여행의 어원이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Travail 인 것이 아닐까?

문화원은 전국 총 229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고 광역단위 16개 시도연합회를 통해 묶여 있으며, 연합회라는 기구를 통해 전국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문화조직으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법률에 의거,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있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며 그것이 지역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연구, 조사, 발굴하는 것이 그동안 중요한 목적 사업이었다. 그 지역을 알려면 문화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

2) 여기서 말하는 파노라마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의 퍼레이드이다. 거기에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간의 얼굴과 액션이 지워져 있다. 그때의 풍경은 자연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생명의 거친 호흡과 약동이 생략된 ‘침묵의 쇼쇼’일 따름이다. 이런 구도에선 오직 주체의 나른한 시선만이 특권 지위를 확보한다. 시선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대상은 전적으로 거기에 종속될 뿐, 도시인들이 보는 전원, 동양인의 눈에 비친 서구, 서구가 발견한 동양, 사실 이런 건 모두 외부자가 낯선 땅을 ‘훔칫’바라보고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 허상이다. 그 허상이 막강한 힘을 확보해 한 시대와 사회를 ‘주름잡는’표상이 되면, 모두 그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그것을 대상에 위압적으로 덧씌우는 식의 악순환을 얼마나 반복했던지. 여행이란 이런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년 14쪽)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빠른 속도로 마을이 해체되고 새로운 도시형태가 정립됨에 따라 외부 인구가 영입되고,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등 인구 구성원의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인구 구성원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의 분위기와 생활 형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 부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건물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기존 주택이 재정비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하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영위해 오던 지역 경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지역의 위상이 변화하기도 하면서, 이른바 ‘베드타운’의 성격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문화가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모습’이라는 정의에 동의한다면, 지역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이고,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양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 문화원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사업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지역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광역단위인 경기도 내에 어떤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가 되고 지역의 문화정책 생산구조가 지역 정가에 맡겨지기도 하면서, 문화원이 가져가야 할 지역의 역사적 바탕에 근거한 문화정책 생산기능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 지역의 문화적 흐름에, 경기도의 문화적 흐름에,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세계적 문화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 점검하고, 유형, 장르, 대상, 소재에 따라 분석, 정리하는 작

업이 절실했다.

본 해외문화탐방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해외문화탐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문화원의 가야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 해법을 찾고자 기획하였다.

본 기획은 4개의 키워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문화원형을 기초로 한 도시브랜드 형성의 실제 해외 사례를 탐방하고, 문화원들의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는 물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향후 어떤 비전과 대안마련이 가능한지까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31개 시, 군 문화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업 또는 지역축제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문화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를 재평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세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관객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적 향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며, 문화예술을 깊이 있게 향유하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심층 접근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화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미 50여년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학교'라는 구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것이 현재의 문화예술적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와 있으며 향후 대안과 비전 마련을 위한 단초를 찾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해체되어버린,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탄생된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건강한 마을 공동체 확립을 위한 사업 유형의 소개, 분석을 통해 문화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마을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활력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낯섦'과 그것으로 인한 문

화적 충격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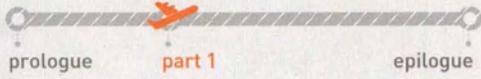
그러나 이제는 어디를 가건 크게 다르지 않은 도시 풍경이 펼쳐진다.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총체'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양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결국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찾아야 하며, 그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형태의 다른 이름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31개 시, 군 문화원을 통해 전개되는 사업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고 전개되며,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는 문화가 어떻게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문화적 양상이 어떻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세계적 문화흐름의 어디에 접점을 두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원형사례연구  
해외연수결과보고서



Part 01

---

# 전체연수개요 및 주요일정표

---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연수 개요



#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연수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

사업내용 | 경기도 시, 군 문화원 임원 및 실무자연수

일정 | ▷ 1차연수

- 일정 : 2015년 6월 23일(화)~26일(금) 3박4일
- 장소 : 대만 일대
- 대상 : 경기도지방문화원 실무자

▷ 2차연수

- 일정 : 2015년 11월 10일(화)~13일(금) 3박 4일
- 장소 : 중국 상하이/항저우 일대
- 대상 : 경기도지방문화원 임원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 경기문화재단

## 왜 가야 했는가

-

- 대도시의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 활동 영역 확대
- 유희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공간 창출 사례 집중 조명을 통한 한국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역사의 현장이 현재적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기

## 어떻게 하려 했는가

—

- 사전 오리엔테이션,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추진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장과 직원 개별 연수  
원장단/직원단 평가회의를 통해 각 사례 공유
- 자부담 원칙 : 연수비용의 약 50% 지원/이하는 자부담
- 문화원형 보존 및 관광상품 활용 방안에 대한 해외 탐방

## 무엇을 하려 하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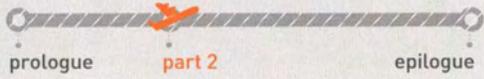
- 대도시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 콘텐츠에 관한 대만 / 상해 / 항주 지역 사례 탐방 및 비교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국내외 정책 비교
- 문화원형의 관광 상품화, 공연콘텐츠화 사례 탐방을 통해 지역 문화원형 활용 방안 모색

## 제1차 경기도지방문화원 실무자연수 주요일정표

제1일 6/23 (화)	07:00 10:00 11:30	인천공항 3층 M 카운터 인천국제공항출발(약 2시간 20분 소요) 도원국제공항 도착 후 중식 후 시내이동 국립고궁박물관 총렬사 대만의 랜드마크 101 전망대 관람 용산사 및 화시지의 야시장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푸원호텔(2인1실)	조:기내식 중:현지식 석:샤브샤브
제2일 6/24 (수)	전일	호텔 조식 후 아류해양공원 스펀천동날리기체험(4인1조 기준) 지우편 타이페이로 귀환 서문정거리에서망고빙수시식체험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푸원호텔(2인1실)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특한식
제3일 6/25 (목)	전일	호텔 조식후 화산문화지구 자유관람 자유중식(중식비 지급 - 타이완달러 기준 500) 단체 식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자유관람 하면서 개별적으로식사 진행 보장암 국제행위예술관 자유관람 장개석 총통의 기념관인 중정기념관 및 총통부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푸원호텔(2인1실)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마리취귀
제4일 6/26 (금)	전일 11:00 12:55 16:30	호텔 조식 후 간단한 시내관광 후 공항으로 이동 탑승수속 도원국제공항출발(약 2시간 35분 소요)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조:호텔식 중:기내식

## 제2차 경기도지방문화원 임원연수 주요일정표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11.10	인천 상해 항주	OZ 361	0905 /1015	07:00 인천공항 3층 M카운터 집결 인천 출발 / 상해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항주로 이동 ▶오산 성황각/성황묘, 청화방옛거리 ▶ 송성가무소 호텔 투숙 및 휴식	중식:상해요리 석식:삼겹살 무제한
				HTL: 나더프리덤 호텔(준5성) 또는 동급	
11.11	항주 주가각 상해	전용 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서호유람, 화항관어 주가각으로 이동 ▶방생교, 청대우체국, 뱃놀이 상해로 이동 ▶황포강유람선, 외탄야경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동파육 석식:광동요리
				HTL: 홀리데이인 상해(준5성) 또는 동급	
11.12	상해	전용 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동방명주+역사박물관 ▶임시정부, 신천지 ▶타이강루예술거리 ▶마시청서커스(A석)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해물누룽지 석식:무제한 샤브샤브
				HTL: 홀리데이인 상해(준5성) 또는 동급	
11.13	상해 인천	OZ 364	1300 /1555	호텔 조식 후 ▶예원, 상해옛거리 공항으로 이동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조:호텔식 중:현지식



prologue

part 2

epilogue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원형사례연구  
해외연수결과보고서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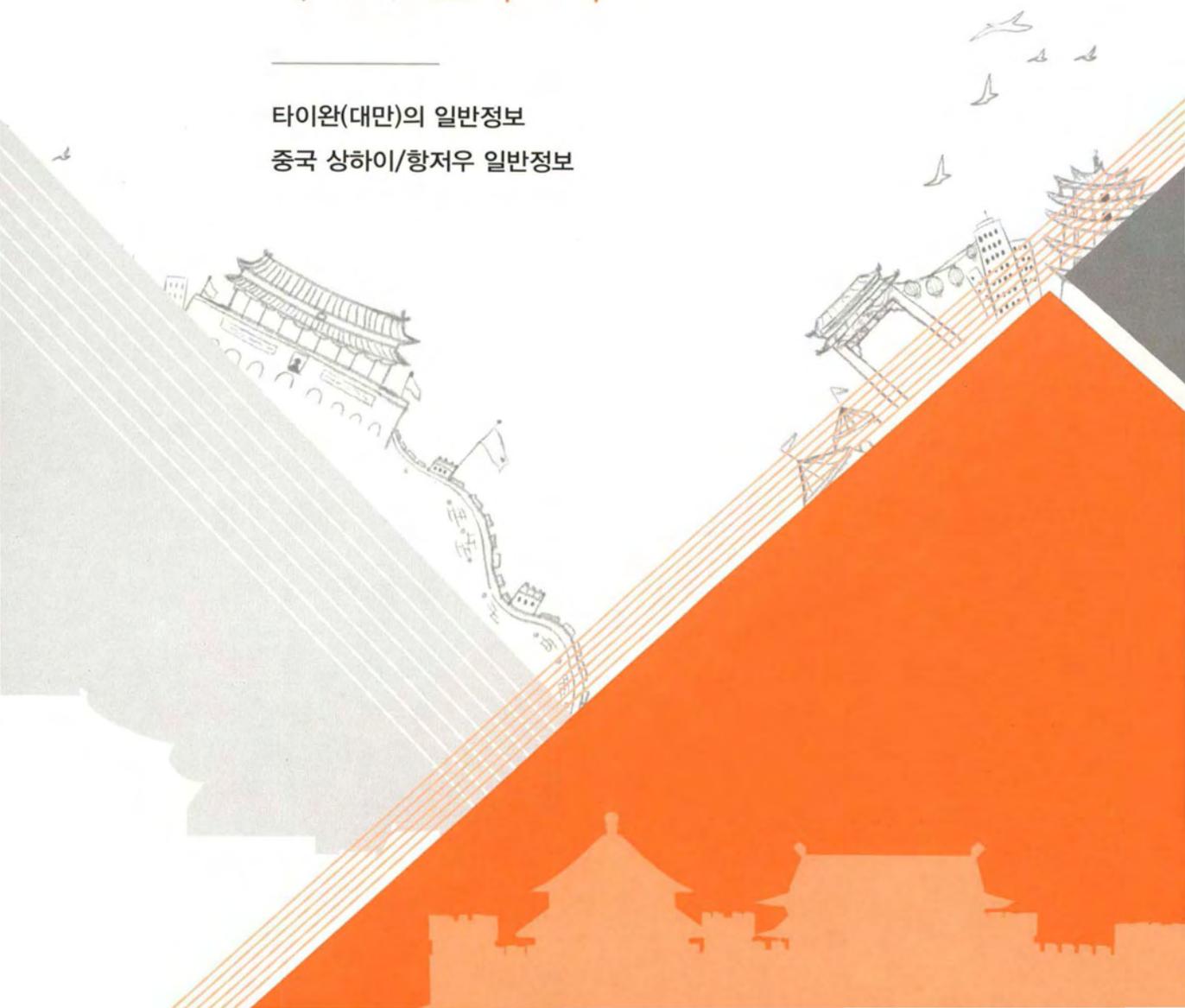
---

# 주요방문국가 정보 및 주요연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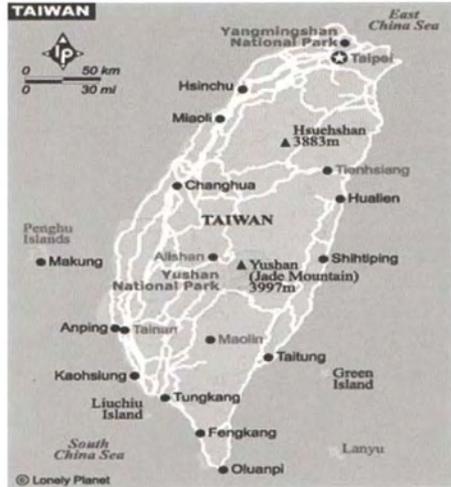
타이완(대만)의 일반정보

중국 상하이/항저우 일반정보



## 타이완(대만)의 일반정보

대만은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본토에서 약 150 km 떨어져 있다. 1885년 하나의 성(省)으로 독립하였고, 청일전쟁 뒤 일본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전해 와 성립된 국가이다.



1) **위치** 타이완은 태평양의 서쪽,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한국과 일본, 남으로는 필리핀과 인접하여 있어 상업 및 교통의 중요한 허브지점이라 볼 수 있다. 타이완은 타원형 모양의 섬이며, 길이는 약 394Km, 넓이는 약 144Km, 총 면적은 약 3만 6000km<sup>2</sup>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20배 이다. (대만과의 시차 :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다.)

2) **기후** 타이완에는 고산, 구릉, 계곡, 평원 등 각종 지형이 있다. 대양과 대륙 중간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회귀선이 경유하는 지점이므로, 타이완에는 관찰 가치가 높은 기후 형태가 많이 형성되었다. 북부는 아열대에 속하며, 남부는 열대기후에 속한다. 고산지형으로 인해 수직 기후변화가 큰 타이완은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의 4가지 기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히 세계 기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봄, 가을 기후는 시원하고 쾌적하며, 여름은 낮 기온이 높으므로 대단히 덥고, 오후에 소나기가 많이 오며 7~9월은 태풍이 오기도 한다.

3) **문화** 중화민국의 전통문화를 현재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다.

4) 언어 만다린(북경어)은 타이완의 지정국어이며, 타이완인들 다수가 민남인이므로 민남어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이 있어 일본어를 구사하기도 하며, 영어와 중국어는 국민교육의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속하기도 한다.

5) 교육 타이완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한국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중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 ※ 여행준비 사항

---

- ① 통화 통화 New Taiwan dollar(NT\$) 콰이라고도 불리운다.  
지폐는 NT\$2000, NT\$1000, NT\$500, NT\$200, NT\$100가 있고, 주화는 NT\$50, NT\$20, NT\$10, NT\$5, NT\$1가 있다.
  - ② 환율 환율 40NT\$ = 1\$  
환전장소 : 중정공항 내 세관검사를 빠져나오자마자 환전 가능 또는 출발 전 인천공항 시내에서는 대만은행이 환율이 가장 좋다.  
(한번에 USD \$1000 이상은 환전이 불가)
  - ③ 전기와 식수 전압은 110V, 60Hz, 식수는 생수를 권장한다.
  - ④ 도착과 출발  
비자 : 외국인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연수, 치료의 목적 또는 그 밖의 합법적인 활동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원할 경우 각국의 주재 대표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타이완 방문 시, 체류기간이 한 달 이하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 여권유효 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

수도	타이베이
종족구성	대만인(84%), 본토중국인(14%), 원주민(2%)
공용어	만다린 중국어
종교	불교·도교혼합(93%), 기독교(4.5%), 기타(2.5%)
건국일	1912년 1월 1일(개국기념일)
국가원수	마잉주(馬英九) 총통(2008.5 취임, 임기 4년)
국제전화	+886
정치	공화제
통화	신 타이완 달러(New Taiwan dollar, NT\$)
인구(명)	23,234,936(2012년)
평균수명(세)	77.76(2008년)
1인당명목GDP(\$)	19,888(2012년)
수출규모(억\$)	3,070(2011년)
수입규모(억\$)	2,792(2011년)

## 타이완의 역사

3세기 중엽 중국의 삼국시대 때 심형(沈瑩)이 저술한 《임해수토지(臨海水土志)》에서는 타이완을 이주(夷州)로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문헌 기록으로 거의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주라는 명칭을 두고 타이완 섬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이견도 있다. 7세기 초 수(隋)나라 때부터 한족(漢族)이 타이완을 정찰정략(偵察征略) 시도하였으며, 타이완을 유구(流求)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유구는 현재의 오키나와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구분없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元)은 1360년 평후섬(澎湖島)에 처음으로 순검사(巡檢司)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였지만 타이완은 관할에 두지 않았다. 명대(明代)에 이르자 해상무역과 해적활동을 하는 한족의 정착이 늘어났고 동시에 동방무역에 나선 서구의 열강도 타이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명나라는 타이완을 행정 관할에 두지 않았고 원주민과 한족,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타이완을 통치하는 기

구나 세력은 없었다.

1590년 동방무역을 위해 이곳 해역으로 진출한 포르투갈인이 타이완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르모사(Formosa)라고 명명하였다. 1616년 일본인들이 대만을 점령하려다 풍랑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후 네덜란드가 타이완 남부에 정착하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동방무역을 위한 것이었다. 네덜란드인들은 앞서 정착한 한 족을 누르고, 이곳에 무역기지를 건설하였다. 1624년 안핑[安平:臺南市]에 지란디아 성(Zeelandia castle)을 구축하였다. 타이완이 중국과 일본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전력적 가치가 높아지자 에스파냐도 1626년 지룽[基隆] 지방의 서랴오섬[社寮島]에 산살바도르성을 쌓았다. 다시 3년 후에는 단수이항[淡水港]에 산토도밍고 성(Santo domingo castle)을 각각 축조하고 타이완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1642년에 에스파냐를 타이완에서 격퇴하고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1661년 명나라가 청에 패망하자 유신 정성공(鄭成功)이 부하를 이끌고 타이난[臺南]에 상륙하여 지란디아성을 점령해서 네덜란드인을 항복시키고 타이완을 항청복명(抗清復明)의 기지로 삼았다. 1662년 정성공이 죽고 이후 아들 정경(鄭經)이 대만을 통치하면서 독립된 국가로서 체제와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1673년 청나라에서 삼변의 난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서 대륙으로 진격하여 푸젠성 일대를 점령하기도 하였지만 1680년 하문에서 패하여 대만으로 다시 퇴각하였다. 정경이 중국 대륙 진출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사망하자 대만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내분으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1683년 6월 청(淸)이 타이완으로 진격하자 3번째 정(鄭)씨 왕인 정극상이 청나라에서 요구한 변발을 받아들이고 항복하였다. 이로써 정(鄭)씨의 타이완 지배는 불과 3대, 22년으로 끝났다. 다음해인 1684년 청은 타이완을 푸젠성에 예속시키고 타이난에 타이완부(府)를 설치하였다.

청나라는 1884년 프랑스와 청불전쟁(淸佛戰爭)이 일어나자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이듬해 타이완을 하나의 성(省)으로 격상시키고 순무(巡撫)를 파견했다. 그러나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면서 타이완은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타이완 주민들은 타이완 순무이던 탕징쑹(唐景崧,

1841~1903)을 총통으로 추대하고 타이완민주국(臺灣民主國)을 선포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다. 5개월 동안 각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무력항쟁을 벌였으나 패하면서 타이완민주국은 붕괴되었다. 타이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1945년 10월 25일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새로 이주해 온外省人(外省人)과 원주민인本省人(本省人)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어 1947년 2월 28 일에는 2·28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뒤 1949년에는 중국공산당과의 내전(內戰)에 패배한 국민당(國民黨)의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난징(南京)에 있던 중화민국(中華民國) 정부를 타이완의 타이페이(臺北) 시로 옮기면서 오늘날까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은 최고기관인 국민대회 및 총통 아래 입법원(국회), 행정원(내각),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의 5권분립제를 택하고 있다. 국민당 1당지배정치를 펴온 타이완 정부는 1949년 이래 계속 실시된 계엄령을 1987년 7월 해제하였으며, 1988년 1월 13일 총통 장징궈[蔣經國]가 사망한 후 부총통 리덩후이[李登輝]가 총통으로 취임하였다. 1989년 1월에는 복수정당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해 12월의 입법원 선거에서 야당세력이 예상외의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집권 국민당에 타격을 주었다.

1991년에는 타이완 수비사령부를 해체하고 진면접 계엄을 종식하였으며, 1992년에는 사상경찰제 및 타이완 경비사령부를 폐지하였다. 1993년 11월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 1994년 7월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던 총통직선제 개헌안 승인을 거쳐, 1996년 3월 총통 리덩후이가 최초의 직선총통이자 제9대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2000년 3월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의 후보 천수이벤[陳水扁]이 쟁전을 겪고 총통으로 선출되어 5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국민당 체제가 중단되었다. 2001년 12월 1일 제5기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진당이 제1당으로 도약하였으며 그후 2004년 3월 20일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벤 총통이 50.12%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때 야당은 3월 19일의 천수이벤 총통 피격 사건으로 국가안전체제가 발동되어 군인과 경찰의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고법원에서 모두 기각 패소하였다.

2004년 12월 11일 실시된 제6대 입법위원 선거에서 야당(국민당, 신민당, 신당)이 입법원

내 과반수(113석)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民進黨 89석, 國民黨 79석, 親民黨 34석, 台聯 12석, 新黨 1석, 기타 10석)되고 이에 2005년 6월 7일 국민대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입법위원수 1/2 감축, 소선거구제 채택,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실시, 국민회의 해산 등 헌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었다. 국민대회는 동대회를 마지막으로 해체되었다. 천수이볜 총통의 측근 비리혐의로 국민당, 친민당 주도 하에 타이완 정치 사상 최초로 총통파면안이 입법원에 제출되었으나 2006년 6월 27일 부결되었다. 2008년 3월 마잉주[馬英九]가 제12대 총통에 당선되었다.

## 타이완의 문화

타이완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대륙문화와 태평양의 해양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문화 유산이 다양하다. 중국의 한(漢)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고 한 때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기도 했으며 서유럽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문화 유산이 중첩되어 있다.

경극(京劇)은 중국 무대예술 중 가장 잘 알려진 연극 분야이지만 타이완의 오페라는 경극의 지역적 변형으로 표준어 대신에 푸젠 방언을 사용한다. 중국대륙의 창초우 지역 민요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일부 레퍼토리는 남부 푸젠성 민요와 타이완 원주민 민요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통소의 역할, 배우들의 훨씬 자유로운 움직임이 타이완식 경극과 베이징식 경극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에는 가장 오래된 민속놀이 중의 하나로서, 푸젠성 남부 방언으로 공연되는 꼭두각시놀음이 공연되는데, 능란한 손놀림, 목소리, 흥내, 재미있는 사설들이 볼만한 장면들을 연출한다. 경극과 마찬가지로 이는 북과 징의 반주로 시작되는데 오늘날에는 중국식 악기와 서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깔린다. 손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놀음은 과거의 종교적 의미를 아직도 갖고 있지만 풍성한 농산물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보통 여름에 무대에 올려지며 마리오넷 꼭두각시놀음은 신의 가호를 기원하거나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공연한다.

타이완의 주요 도시들은 전통적인 중국식 건축물과 20세기 초의 일본식 건축물 및 근대 서구식 건축물 등 어떤 형태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혼합양식의 건축물들이 많다. 타이난이나 루캉곽 같은 타이완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중국의 전통적 건축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국의 건축은 유럽의 고딕식 사원이나 일본의 정원양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건물의 기본구조가 전형적인 U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 또는 2층의 건물로 처마가 매우 가파른 기와 지붕의 중국 고대양식 건축물들이 지방에 산재되어 있다. 타이완에는 또 주로 청대(清代: 1644~1911)에 건축된 사원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절들이 많이 남아 있다.

## 타이완과 한국과의 관계

1948년 8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타이완의 총통 장제스가 한국을 방문하고 1966년 대통령 박정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등 수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1992년 8월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후 단교하였다. 1993년 비공식 관계를 설정한 후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상주하게 되었다.

2004년 9월 민간항공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0년의 대한(對韓) 수출 39억 800만 달러, 수입 89억 8800만 달러로부터 2006년의 수출 92억 8700만달러, 수입 129억 9600만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교역 규모는 서로에게 5대 교역국의 위상을 가져다 주었다.

타이완의 주요 수출품은 집적회로, 사무용기기, 컴퓨터 보조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음극선관 등이다. 한국과 타이완은 경제발전단계가 상호 유사하여 양자간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재지 거류중 소지자 기준으로 약 3,000명의 한국인 교민이 있으며, 이 중에서 유학생 1,410여 명, 영주교민 약 700명 등이다.

## 중국 상하이/항저우 일반정보

### 상해(상하이)의 역사와 문화

#### 1. 고대

##### 춘추시대

오나라의 동쪽지역에 속했으며, 전국시대에는 초나라에 속했다. 일찍이 초나라 춘신군(春申君)의 봉토였으며, 그 흔적은 현재 상하이를 관통하는 황푸 강(黃浦江)의 옛 명칭인 춘신강(春申江)과 상하이에 대한 약칭 중 하나인 선(申)에 남아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 오나라의 항구 도시였으며, 오나라 황제 손권(孫權)의 형인 손책(孫策)이 회계 전투에서 이겨 이 곳을 차지하였다. 손권은 이 곳의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지나칠 수가 없어, 자신의 별장을 만들어 구경하였다고 하는데 이 별장의 위치가 와이탄(外灘)<sup>3)</sup> 주변에 있다.

##### 서기 4, 5세기 진나라 때

쑹장(松江)(지금의 쑤저우허(蘇州河))와 임해 일대의 주민들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았고, 대나무로 “후(扈)”라고 부르는 낚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고, 또 당시 장강의 지류가 바다로 이어지는 곳을 “두(澆)”라고 불렀기 때문에, 쑹장 하류일대(현재 쑤저우허와 황푸 강이 만나는 지대)를 “후두(扈澆)”라고 불렀다. 후에 “후(扈)”를 “후(滬)”라고 부르게 되었다(이 또한 상하이의 약칭 중 하나이다). 상하이는 우쑹장(吳松江) 하류에 위치해 있어 “상하이푸(上海浦)”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 당나라 중엽 이후

화팅(華亭) 현의 일부였고, 송나라 말에 상하이 진(鎭)이 형성되었으며, 1292년 상하이

3) 상하이 와이탄 야경이 연수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동방명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야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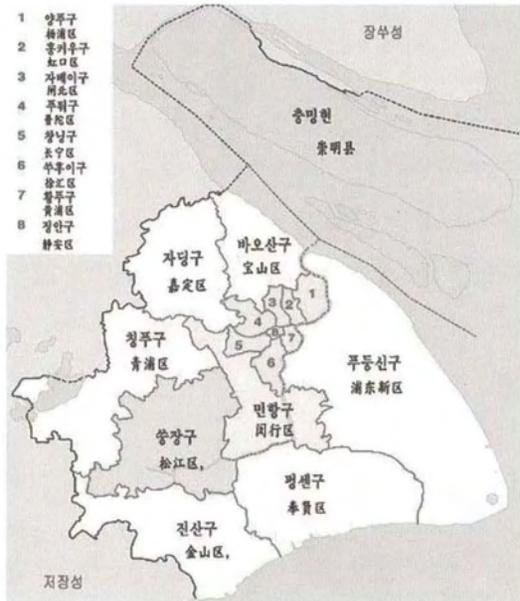
현(縣)이 되었다. 명나라가 흥성하던 1553년에 왜구에 대항하기 위해 성을 쌓았고, 난징(南京)지구 쑹장 부 관할이 되었다. 쑹장 부 관할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면방의 중심지였다. 청대에는 명의 제도를 답습하여 장강 이남의 쑹장 부에 귀속시키고, 상하이 세관을 설립했다.

## 2. 근대

아편전쟁이 끝난 1842년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난징조약(南京條約)에 따라 상하이는 1843년 중국의 5개 대외 무역항 중 하나로써 개항되었고,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 계속해서 상하이에 거류지를 형성했다.

1842년 8월에는 아편전쟁에 패한 중국은 굴욕적이고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을 체결하였고, 1843년 10월에 후먼조약을 체결하여, 영국인의 주거지와 임대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 상하이 시내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1843년 11월 14일 첫 번째 영국 영사인 조지 뵈퍼어가 상하이에 도착하면서 11월 17일에 정식으로 상하이의 개항을 선포하였다. 이후 100년 동안 상하이에 조계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1854년 태평천국전쟁 중에 자치행정기구를 설립하면서 공식적으로 청나라 정부의 행정과 사법관할권 밖의 독립된 조계지가 되었다. 그 후에, 상하이는 2개의 상하이 조계지와 중국지방정부가 분할 관리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상하이 황푸 구, 징안 구, 홍커우 구, 양푸 구는 상하이 공동 조계였고, 창닝 구는 상하이 공동 조계 밖에 구역이었다. 또 루완 구와 쉬후이 구는 프랑스의 조계지였다.



자베이 구와 난스 구는 중국이 관리하던 지역이었으나 조계 때문에 연결할 수 없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었다. 개항 후 상하이는 극동에서 가장 번창한 항구로써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아시아의 유일한 국제도시로 발전하였다. 상하이는 조계 때문에 전화가 미치지 않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충분한 국제관계를 향유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근대 상하이의 번영을 가져왔다.

1912년 중화민국 성립전후에는 청나라의 구세력이 아직 철저히 제거되지 않았고, 새로운 세력조차 미숙한 상태였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군인이 정권을 잡았고, 정부와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상하이의 조계는 평화로웠고, 경제와 인구 등 각 방면에서 오히려 빠른 발전을 보였다. 1912년부터 1936년까지를 상하이 조계지가 번영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중화민국 초년에 조계 외에 자베이와 난스 지역은 장쑤 성에 포함되었다.

1927년 중화민국정부는 조계지 이외의 지역을 상하이 특별시를 세우고, 중화민국과 행정원을 직속 관할로 귀속시켰다. 동시에 장쑤 성의 상하이 현(上海縣)과 바오산 현(寶山縣)의 17개 도시를 편입했다. 1930년 7월 상하이 시로 개칭했다.

20세기 초, 상하이에는 중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건이 계속 발생한다. 1921년 7월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 대회가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중국공산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어 1922년 7월과 1925년 1월 중국 2대와 4대 대표대회가 개최된다. 1925년 5월 30일, 일본계 방적공장의 공장주가 파업노동자를 총살했고, 이에 상하이 학생과 시민들은 상하이에서 가장 변화한 상업가인 난징루(南京路)에 모여서 항의를 했다. 이에 대한 영국경찰의 발포로 오삼십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국적인 반영(反英)운동을 야기했다.



1927년 4월 12일 상하이 자베이에서 4·12사건(四·一二事件)이 발생했다. 국민혁명군이 노동자 규찰대에 대해 무장해제를 강행하여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중국공산당은 분열되었다. 그 후에도 중국공산당(1921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비밀리에 성립)의 중앙기관은 공동 조계 중립구역인 원난루(雲南路)에 숨어 있다가 1933년 강서 해방구가 안정된 후에 그곳으로 옮겨왔다.

1932년 1월 28일 일본이 중국동북에서 일으킨 만주사변(九一八事變)후에, 상하이에서 일본 승려가 중국 노동자에게 구타당한 것을 구실로 제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다. 상하이 자베이 구에서 중국과 일본 양국의 격렬한 군사 충돌이 한 달 남짓 계속되었고, 국민정부가 잠시 낙양으로 옮겨가기까지 했다. 1937년 8월 13일에 장제스(蔣中正)이 중국군 70만 명을 동원하여 상하이 부근에서 일본군과 대전을 치른다. 이 중일전쟁(제2차 상하이사변)에서 중국군은 큰 대가를 치렀지만 끝내 일본군에 패하고, 일본군이 무력으로 상하이 조계 외의 지역을 점령한다. 이 기간에 상하이 공동 조계의 북쪽 절반, 즉 지금의 훙커우 구와 양푸 구는 일본군의 방어지역과 일본 세력의 범위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일본은 영국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상하이 조계를 공격했고, 상하이는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다.

후에 일본은 조계를 그를 돕던 왕징웨이(汪精衛) 정권에 반환했고, 미국과 영국도 조계지를 포기했다. 1942년부터 조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100년 간 지속되던 조계시대는 끝이 났다.

1945년 상하이는 중화민국이 점령하여 관할하게 되었고 1949년 5월까지 상하이는 국민정부가 통치하였다. 그 후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국부군과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 사이에 대규모 내전이 발생한다. 1949년 5월 27일, 인민해방군이 국부군을 패배시킨 후 상하이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그 기간에 국민정부와 중국국민당, 외국기관, 그와 관련된 많은 인원과 재산이 상하이를 떠났다.

### 3. 한국의 독립운동



상하이는 교통이 편리하고 쑨원이 이끄는 광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조계가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 독립지사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프랑스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조계에 살면서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런 까닭에 독립지사들이 상하이로 몰려들었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國務領, 즉 총리)인 김구(金九)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연(천장절(天長節))과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행사를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협의 끝에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기로 결정했으며 윤봉길은 의거를 수행했다.



그림16. 황후의 야경



그림15. 한국독립운동의 발자취

## 4. 현대

1949년, 상하이 는 직할시가 되었고, 후에 중국공업의 중심이 되었다. 문화대혁명시기에 상하이는 사인방 장춘차오(중국어 간체: 張春橋)와 왕홍원(王洪文)의 활동 기지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후에 상하이는 중국대륙의 경제중심지로서 남방지역, 특히 경제특구의 도전을 받았다. 1989년 천안문 사태(六四事件)때 상하이의 각계인민과 학생들도 부패에 반대하고 민주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하이는 다시 경제와 금융,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1993년, 푸둥(중국어 간체: 浦東)의 개방으로 시의 발전은 가속화되었다. 현재 연간 일인당 평균 GDP가 6%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상하이는 국제적인 경제, 금융, 무역, 항운의 중심이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푸둥과 푸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건축도 상하이의 발전진행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황푸 강과 장강 양안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1971년에는 송푸대교(松浦大橋)의 건설로 다리가 없던 황푸 강의 역사를 다시 썼다. 1991년 12월 1일에는 난푸대교(南浦大橋)를 개통했다. 황푸 강에는 이미 6개의 다리가 건설되었다. 양푸대교(1993), 수푸대교(1996년), 루푸대교는 2002년 완공된, 세계에서 가장 긴 아치 교량 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1970년 9월에는 따푸루(打浦路)터널이 건설되었고, 1989년 10월 24일에 옌안(延安)동로 웨장(越江)터널이 개통되었으며, 2003년 9월 29일에 따렌루(大連路)터널이 개통되었다. 터널의 개통으로 시내 금융무역지구에 큰 변화가 생겼다. 1994년 11월, 동방명주탑(東方明珠電視塔)이 완공되었다. 1999년 3월 18일, 진마오 빌딩(金茂大廈)이 영업을 시작했다.

1999년 8월에는 상하이 국제회의센터가 문을 열었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거행 전에 중국에서 가장 높은 상하이 세계금융센터가 건설되었다. 상하이는 푸둥 개방 후에 많은 국제회의를 주관해왔고, 국제적인 영향력도 증가했다. 동시에 중국대륙의 경제와 사회도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01년 10월 21일 상하이에서 제9회 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열렸고, 2006년 6월 15일에는 상하이 협력 성원국의 원수 이사회 회의가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에 상하이는 2010 상하이 엑스포를 개최했고, 그 외에 매년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전시회가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이런 사업은 이미 상하이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1949년 상하이의 면적은 636km<sup>2</sup>였다. 1958년, 장쑤 성의 상하이(上海), 바오산(중국어 간체: 宝山), 자딩(嘉定), 송장(松江), 난후이(南匯), 칭푸(青浦), 평셴(奉賢), 충밍(崇明), 진산(金山), 찬샤(川沙) 10개현이 상하이에 편입되면서 상하이 시 직할구의 범위가 5910km<sup>2</sup>로 확대되었고, 2003년 말에 이르러 상하이 면적은 6340.5km<sup>2</sup>가 되었다.

## 5. 지리적 조건

상하이는 북위 31도 14분, 동경 121도 29분에 위치해 있다. 중국 해안선의 중간 지점으로, 바다로 이어지는 장강 입구에 위치한다. 장강 삼각주 충적평야의 최전선이고, 동쪽으로 동중국해에 면해있다. 상하이 시 북쪽에는 장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항저우 만과 접해있으며 서쪽에는 장쑤 성과 저장 성이 위치하고 있다. 시의 전체 면적은

6340.5km<sup>2</sup>이고, 남북으로 최대 120킬로미터, 동서로는 최대 100킬로미터가 된다. 그 중 시 직할구의 면적은 2648.6km<sup>2</sup>이다.

상하이 시는 충적평야이고, 서남부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화산언덕이 있다. 평균 해발 고도는 4미터 정도이고, 지세가 평탄하고, 산맥이 적으며 지대가 낮다. 서부에 서 산(佘山), 텐마 산(天馬山) 등이 있지만 고도가 100미터 이하이다.

상하이 시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곳은 항저우 만에 있는 다진 산(大金山)으로 그 고도는 103미터이다.

## 6. 기후조건

-

상하이는 온난 습윤 기후(코펜의 기후 구분 Cfa)에 속한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조량과 강우량이 풍부하다. 봄과 가을은 비교적 짧고, 여름은 비교적 길다. 봄, 여름, 가을에 3번의 우기가 있다. 6월~9월에는 습도가 높고 기온도 높아 날씨가 매우 덥고,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날도 많다.

여름과 초가을에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아열대폭풍(태풍)의 영향을 받는 때가 있다. 겨울은 가끔 추운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온화하며, 건조하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별로 많지 않다. 눈은 가끔 오지만 쌓일 정도로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 7. 경제

-

상하이에는 많은 외국 은행과 회사가 있었다. 상하이는 당시 중국의 경제무역 중심이었다. 상하이는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농업은행, 사대정부은행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국가자본과 더불어 관료 자본 금융기관 그 밖에 또 외국 화교 금융기구가 모여들고 있었다.

와이탄 부근에 각국의 힘 있는 은행들이 모여들어 영국 HSBC, 독일 덕화은행, 일본 횡빈정금은행, 러시아 화아도승은행, 프랑스 동방회리, 미국 시티은행, 벨기에 화비은행 등은 “동방화니가”를 구성했다. 여전히 많은 개인 자본 경영의 은행, 전장(개인이 운영했던 개인 금융기관)과 신탁회사(이하 약칭 사영행장공사)를 보유하고 있다. 1927년부터 1937년에 이르기까지 “황금시기”의 발전을 경험했다.

항일전쟁 발발 전, 상하이의 사영행장공사는 이미 105개에 달했다. 그러나 항일 전쟁을 겪고 해방전쟁시기 1949년 5월 상하이 해방 시, 상하이사영금융업의 전체 자금력은 실제로는 이미 대폭 약화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119개의 사영은행, 80개의 전장과 5개의 신탁공사가 있었다. 하지만 1952년 말, 상해사영금융기구의 수가 60여 개까지 급락하였다. 1956년 초, 정부는 회사공영정책을 실행하였고, 끝내 모두 통일된 회사공영 은행 연합 총관리처로 합병되었다.

1949년 이후, 상하이의 자본가 일부분은 모두 이미 홍콩, 대만으로 빠져나가거나 해외의 다른 지만으로 빠져나갔다. 또 다른 일부분은 상하이에 남아 계속 경영되었다. 마지막으로 1956년 초, 모든 회사가 공동으로 경영되었다.

상하이는 중국대륙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된 도시 중 하나이다. 2004년에는 1인당 GDP가 6661달러였으며 10년 연속 연평균 경제성장률 8%를 초과했다. 3차 산업은 상하이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는 금융업과 부동산업, 보험업 그리고 운수업 등을 포함한다. 푸둥 신구에 위치한 루자쭈이(陸家嘴)(금융무역구)는 상하이의 신흥 금융 중심이다. 중국 인민은행 총본부는 2005년 8월 상하이에 계열 회사와 사무소를 설립했다.

상하이 공업발달은 국민정부시기와 계획경제 시기에 상하이의 공업 발전 수준이 이미 전국의 선두에 섰다. 개혁개방 초기, 중앙 정책 원인으로 말미암아, 중국 동남 지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상하이의 공업은 한 차례 변연(가장자리)화 위기에 직면하였

지만, 90년 중반 이래, 푸둥 신해방구의 개발에 따라, 아울러 재정은 지불비중을 감소하는 등 많은 방면의 원인을 바꾸었다. 상하이의 공업은 또 다시 생존의 기회를 진작했다. 상하이 공업은 전국 총생산의 10분 1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으로는 경공업과 방직산업을 아울러 중공업, 야금, 석유화학, 기계, 전자공업을 위주로 그 밖에 자동차, 항공, 우주항공 등의 공업이 있다.

## 8. 문화

이름의 기원

“상해”(上海)라는 한자 두 글자는 문자적으로 “위에”, “꼭대기”라는 의미와 “바다”라는 뜻을 가진다. 표준발음으로 상하이는 “상하이”(중국어: 上海, 병음: Shànghǎi)이지만, 상하이 사람들의 발음으로 상하이는 “짱해”(/zā’he/)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지역 관공 역사는 일관되게 “바다 보다 더 높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또 다른 발음, 특히 사투리에서는 “바다 위로 가다”는 의미를 제시하기도 한다. 상하이의 좀 더 시적인 이름은 두 문자를 바꾸기도 한다. 즉, 하이상(해상)이다. 서부에서는 상하이가 상하이, 짱하이, 창하이라고 불리지만 1990년대에 와서는 표준발음이 “상하이”로 정해진 이후 서부에서도 이렇게 널리 불리게 되었다.

상하이는 “동쪽의 파리(Paris of the East)”, “동양의 여왕(Queen of the Orient)”, 심지어는 1920년과 30년대의 만연한 부정과 약, 마약, 그리고 매춘과 관련하여 “아시아의 매춘부”등 영어로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

건축 양식

상하이에는 현대적인 건물뿐 아니라 전통적인 건물도 남아있다. 상하이는 다양한 건축양식의 빌딩과 구조물들이 무척 많다. 황푸 강변에 위치한 와이탄에는 20세기 초 건축양

식이 잘 나타나는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HSBC 빌딩에서부터 침탑 형식의 싸쑤하우스(현 화평반점)에 이르기까지 즐지어 있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서도 유서깊은 이 도시는, 강남 양식의 전통적인 정원인 예원(중국어 간체: 豫園, 병음: yùyuán 위위안[\*])을 포함하여 여전히 전통적인 양식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에는 독특하고 괴상하기조차 한 마천루들이 상하이에 생겨났다. 현대건축물의 특징적인 예로는 인민광장 관구에 있는 상하이 박물관과 상하이 대극원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 중의 하나인 동방명주탑이 상하이에 자리하고 있다. 그 근처에 있는 상하이 세계금융센터는 중국 본토의 가장 높은 고층건물이며 세계에서는 세 번째 순위이다.

## 종교

세계 각지가 모였던 역사 때문에 상하이는 종교적인 건물과 시설들이 도시 각지에 흩어져 있다. 상하이에서의 도교는 몇몇의 사원을 가지고 있고 상하이도교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가장 큰 사원은 상하이 심장부에 있는, 도시의 보호자로서 여겨지는 3명의 역사적 인물을 모시는 신전이다.

유교사원은 공자를 모시는 예원 근처의 문묘(중국어 간체: 文廟, 병음: Wénmiào 원묘오[\*])를 비롯하여 관우를 모시는 사원이 많다.

징안사(정안사, 중국어: 靜安寺, 병음: Jìng ān sì 징안쓰[\*])

상하이의 불교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룡화쓰(용화사, 중국어 간체: 龍華寺, 병음: Lónghuá sì)은 상하이에서 가장 큰 사원이고 삼국시대에 창립되었다. 상하이 도심지에 위치한 징안쓰 또한 삼국시대에 처음 지어졌다. 다른 주요사원은 사원 안에 옥으로 조각된 큰 부다상의 이름을 딴 위포찬쓰(중국어 간체: 玉佛禪寺, 병음: yùfóshàn sì 옥보선사[\*])이다. 상하이에는 수세기동안 꽤 규모 있는 이슬람 인구들이 거주했다. 그들은

소다원 사원, 송장(송강, 중국어: 松江, 병음: sōng jiāng)사원 등 많은 이슬람 사원을 섬겨왔다.

쉬자후이 천주교당(서가후 천주교당, 중국어 간체: 徐家汇天主教堂, 병음: Xújiā huì Tiānzhǔjiāotáng 쉬자후이 텐주자오탕[\*])

상하이에는 또한 기독교의 주요성지이다. 다양한 종파가 속한 교회 또한 상하이에서 창건되었고 주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들 사이에 성이나주에주지아오 쩌탕(중국어 정체: 聖依納爵主教座堂) 대성당이 가장 크고 쉬싼 대성당은 성지순례를 가는 교회이다. 다른 주목할 만한 교회는 동찌아두 대성당이다. 동방 정교회 교회와 다양한 유대교 회당이 있다. 유대교 정통파 형식의 회당 건물은 상하이의 역사를 증명해 준다.

## 대중교통

동하이 대교(東海大橋)상하이의 택시는 넘쳐나고 시장의 경쟁은 보통수준의 거주자들을 위해 택시 요금을 알맞은 가격으로 내리도록 의도했다.

1990년대 이전 자전거는 상하이에서 가장 보기 쉬운 교통수단이었지만 시정부가 많은 도시의 주요도로에 자전거를 금지하면서 혼잡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많은 도로는 이미 자전거 이동도로를 가지고 있고 교차로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제공케 하는 교통 협력가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대부분의 검토자들은 자전거주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시 정부는 향후 몇 년 만에 180km에 달하는 자전거주행도로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상하이의 개인 자동차 소유주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의 수는 제한되어있지만 사용가능한 자동차번호판은 경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철도와 지하철

상하이 당국과 상해 고속철도 개발 회사의 협력으로 독일 트란스 라피드는 2002년 푸동(浦東)의 상하이 룽양 지하철역에서 푸동 국제공항을 잇는 고속철도가 구상되었고 2003년에 시행되었다. 30km의 여행이 최대 431km/h의 속도로 최대 7분 21초만에 도착한다.

## 철도

상하이에 있는 두 개의 철도교차점은 난징을 지나는 징후 철도와 상하이-항저우(杭州) 철도이다. 상하이에는 주요 철도역이 두 군데 있는데 각각 상하이 철도역과 상하이 철도남역이다. 고속철도는 2007년에 건설예정인 항주를 지나고 북경으로 가는 초고속 철도 또한 작업 중이다.

## 지하철

상하이 지하철은 1호선~13호선, 16호선이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 고속도로

베이징과 상하이 주변지역의 6개 이상의 고속도로가 도시를 연결하고 상하이에는 도시 중심과 18개 도시의 고속도로에 6개의 통행료무임인 고속도로가 있다. 상하이 도시 중심의 충밍다오(崇明縣)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의 터널과 다리는 푸시와 푸동을 잇는 데 사용된다.

## 공항

상하이는 두개의 공항을 갖는데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上海虹橋國際機場)과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上海浦東國際機場)이다.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은 베이징 공항과 홍콩 공항을 이어 세 번째로 중국에서 가장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공항이다. 2006년 베이징의 1260만명에 비해 푸동공항은 1715만명의 국제고객이 왕래해 베이징 국제공항보다 더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했다.

## 항만

2005년 12월 새롭게 출항된 상하이의 양산심수항(중국어: 洋山深水港, 양산 선수이강 [\*])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이다. 총 32.5km에 달하는 등하이 대교(東海大橋)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세계적으로 긴 다리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상하이의 양산섬으로 가는 대륙을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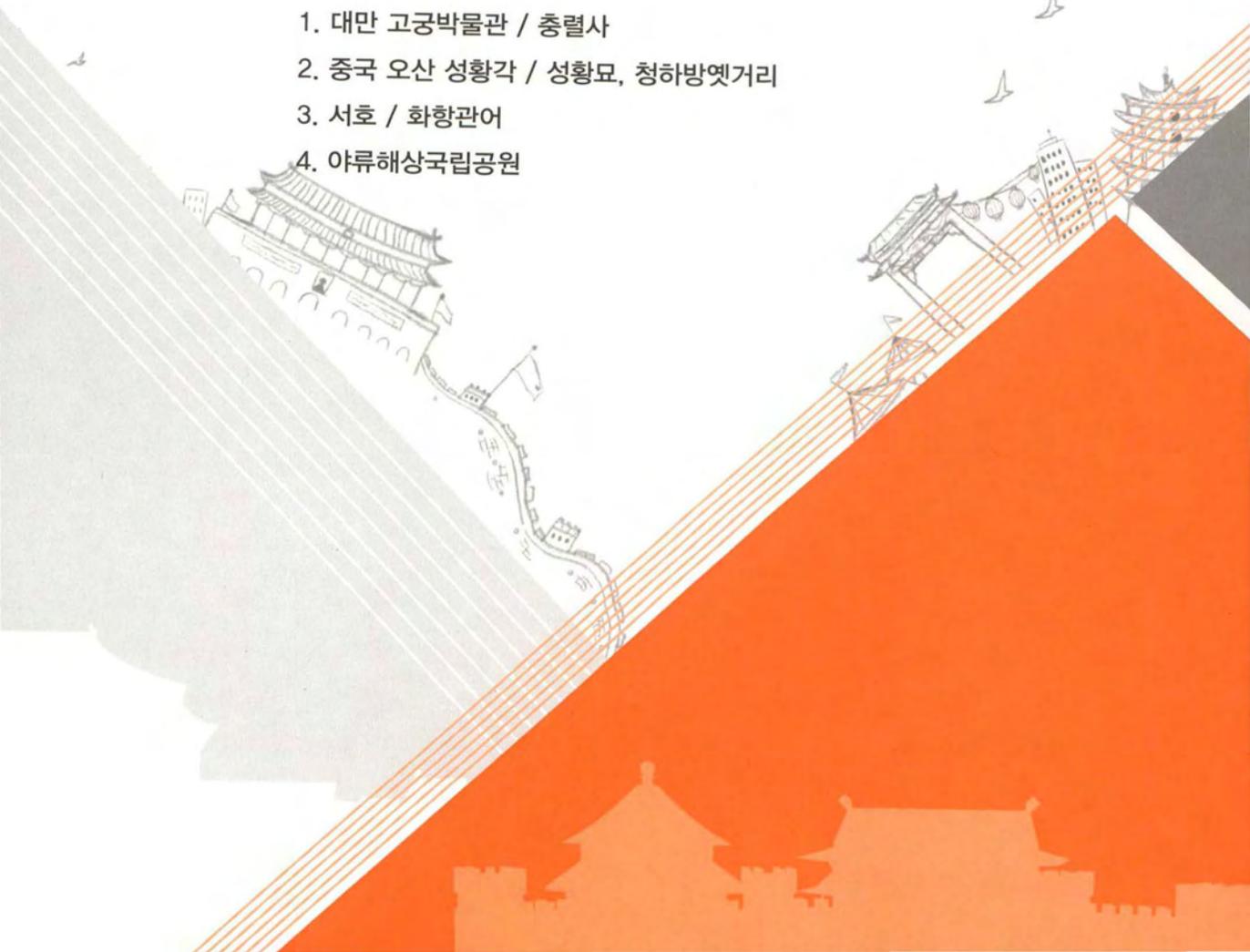
## 교육

—  
상하이에는 100개 이상의 연구 기관이 있고, 10만의 연구 과학 인력과, 100개 이상의 전문 과학 교육기관이 있다.

## Part 03

#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례 탐방

1. 대만 고궁박물관 / 총렬사
2. 중국 오산 성황각 / 성황묘, 청하방옛거리
3. 서호 / 화향관어
4. 아류해상국립공원



##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례탐방

이번 기획의 첫 번째 목적은 문화원형의 보존과 활용의 방법을 고민해 보고 해외 현장을 답사하면서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만의 고궁박물관은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 오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가져온 수많은 유물들이 집대성 되어 있는 곳이고 야류해상국립공원은 모래로 만들어진 기암괴석이 만들어 내는 신비한 자연환경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고궁박물관은 중국의 역사를 알려면 대만에 와야 한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 한 가운데 박물관을 조성, 진귀한 보물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또한 야류해상공원은 무엇보다 각각의 모래바위에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 그것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도록 세팅되어 있다. 또한 모래바위이기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중국 항주의 성황각과 성황묘, 청화방 옛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무 한 그루, 길 모퉁이, 바위나 돌맹이 하나 하나에 지난 역사와 관계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다. 특히 항저우 소동파와 얽힌 스토리는 서호, 청하방 옛거리, 전통차, 동파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문화인물을 중심으로 한 옛 설화, 전설이 무궁무진하다.

그것이 유구한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 자연스러운 결과일까?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가 아닐까?

각 지역 문화원에서 발굴하고 조사한 역사 인물은 소동파만 못해서 일까?

우리나라에도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지역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 지는 순간이다.

이러한 문화원형들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일이 지자체 장들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이번 연수를 통해 문화원에서 가능한 것과 실현가능성의 정도를 찾아보고자 했다.

## 1. 대만 고궁박물관과 총렬사 그리고 중정기념관

타이베이(台北)시는 타이완에서 가장 큰 도시로 타이완의 정치, 경제문화의 중심이다. 타이완은 타이베이인들의 성실한 노동과 훌륭한 계획의 결과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다. 30년 전만 하여도 논밭이던 곳에 유리현관의 고층 업무용 빌딩, 호화로운 콘도미니엄, 그리고 현대식 백화점과 가로수가 줄지은 대로가 있는 도시로 변화했다. 멋지게 차려 입은 시민들은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정찬을 즐기고 최신 음악의 멋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며 국제적인 스타들의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공연에 참석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저변에 깔린 현재의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는 관광객에게는 신비롭게 보인다. 오래된 사원에서 평안을 비는 신도들과 폭죽이 터지는 거리를 다니며 정성스런 종교의식을 갖는 사람들, 수천 년간 사용되어온 한약을 파는 조그만 가게, 전통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는 모습 등, 시내 여러 곳에서 오래된 문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름다움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에서 어디를 구경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타이베이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다면성의 도시이다.



그림18. 국립고궁박물관



국립 고궁 박물관은 민국14년에 공식적으로 완성됐으며, 주요 수집품으로는 청나라 자금성의 진귀한 보배가 있으며, 송, 원, 명, 청나라의 물건이 수집되어 있다. 서화, 옥기(玉器), 도자기, 조각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황궁 귀족들만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다. 전쟁 등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진 후, 모든 물건들은 모두 대만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이곳의 교통이 편리하지 못해 민국54년에는 타이페이 외곽 쌍계지역에서 새로 건축하여, 이를 중산 박물관으로 명명했다. 국부 손중산(손문)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타이페이로 확장 이전하여 지금의 규모가 되었다. 고궁 박물관은 중국 역사 문화의 전승과 연구에 큰 공헌을 주었고, 이는 또한 많은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원인이 되었다. 고궁의 정원은 매화형으로 4층 건물에 5개의 큰 홀과 20여 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전시품이 특색에 따라 영구적인 전시와 테마적인 전시로 구분을 했다. 전방에는 지선원이 있으며, 이곳에는 8곳의 승경이 있으며, 왕희지(王羲之)의 천하제일 행서는 전통적인 중국의 건축을 설계했고, 7,000여 평의 넓고 아름다운 곳이다.

중정기념당은 장개석 총통을 기념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민국 65년 건설으며, 타이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외관은 흰색의 대리석으로 팔각형의 파란색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앞에는 붉은색의 화단은 자유, 평등, 박애의 신성정신을 상징하고, 양쪽에는 각각 국가 희극장과 국가 음악청이 있다. 이 두 곳은 동일하게 황금색과 붉은



기둥으로 중국 전통의 건축물로 지어졌으며, 당 내에는 문물 전시실, 시청각실 및 장개석 기념실 등이 있고, 다원화의 기능으로 설계하여 건축 및 인문,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합이라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충렬사는 북안로와 명수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뒤로는 청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는基隆(基隆)강도 있다. 이곳은 1969년에 항전시기에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33인의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곳이다. 충렬사는 매우 넓은 곳으로 건축 외관에는 북경의 고궁 태화전을 모방하기도 했으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민국 58년에 완공 되었다. 현재까지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리는 명소로 특히 매 정시마다 위병들의 교대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 사진과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있다.



## 2. 중국 오산 성황각 / 성황묘, 청하방옛거리

—  
항주 오산의 성황각은 불가의 제자인 성황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중국 강남 4대 누각



그림25. 성황각 전경



그림26. 청하방옛거리

항주 오산의 성황각은 불가의 제자인 성황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중국 강남 4대 누각이다.

항주 사람들은 성황을 재물신, 비 내리는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

높이 41.6m의 7층 건물로 남송시대 생활풍속을 표현한 <남송항성풍정도>라는 유명한 입체 조소 작품이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있는 항주 시가지와 서호를 볼 수 있다.

성황각 앞에 성황묘가 있으며 성황묘 앞에 있는 종을 세 번 치면 원하는 일이 잘된다고 한다. 성황각 관광을 마치고 다시 주차장을 거쳐 가면 청나라 시대 거리를 재현한 청하방 거리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인사동과 같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 3. 서호 / 화향관어

—

반 자연 반 인공 호수이며 서호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 땅에서 솟은 샘물, 남자가 흘린  
침의 물, 여인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27. 서호전경

서호 10경으로 물고기와 모란꽃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로 중국의 10대 관광지에 꼽히는 곳이다. 항주는 1,600㎢로 인구는 8번째 도시이나 경제적으로는 6번째로 잘사는 도시다. 10대 도시 중 살고 싶은 도시 1위다.

서호에는 선비 허선과 백사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있다. 서호 전설에도 하늘나라의 강 은하수가 있다.

서호 사랑의 전설이 중국 4대 전설의 유래가 되고 있다. 서호는 반 자연 반 인공 호수이며 서호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 땅에서 솟은 샘물, 남자가 흘린 침의 물, 여인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인구 13.5억 인구 중 바다를 못 보는 사람이 6억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물을 좋아한다. 인자는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 4. 야류해상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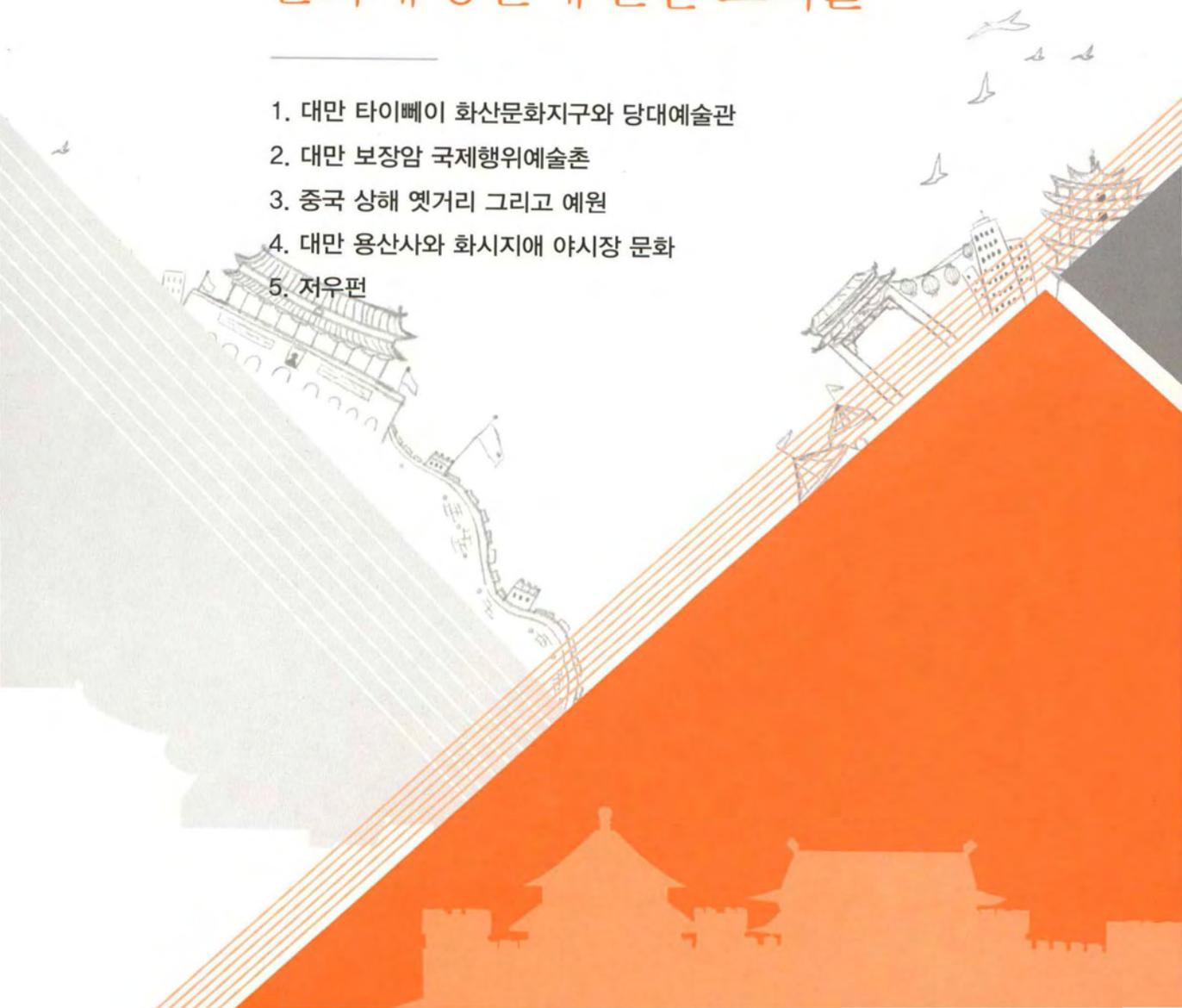
야류(野柳)의 자연적인 바위형성은 자연의 힘과 침식에 의해 생성된 예술적 모양의 놀랄만한 배열이다. 거대한 계란 모양의 바위가 마음대로 흩어져 있고 슬리퍼 모양의 바위는 어부들에게 승강대로 사용되며 그곳에 있는 여왕바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집트의 여왕 네페르티티의 옆얼굴을 닮았다고 한다. 넓게 그리고 부드럽게 물결치는 해안에 뿌려져 있는 이상한 모양의 용암과 사암 그리고 교량모양의 돌은 과거 주수로 인해 생겼던 웅덩이로부터 멋진 해안선이 보이는 좁은 돌기까지 연결해 준다. 유명한 바위로 걷는 도중에 관광객들은 식당과 훈련된 돌고래와 바다표범이 있는 해양세계공원, 스낵가게, 기념품점 등을 지나게 된다. 야류는 타이완 북쪽해안 지룽(基隆)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이페이로부터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다.



## Part 04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노력들

1. 대만 타이베이 화산문화지구와 당대예술관
2. 대만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촌
3. 중국 상해 옛거리 그리고 예원
4. 대만 용산사와 화시지에 야시장 문화
5. 저우편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노력들

이번 기획에서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가 공존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대만과 중국 연수의 핵심이다.

대만 화산문화지구는 정부의 자본이 투여되어 양조공장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지역의 각종 박람회 뿐만 아니라 영화관, 쇼핑몰, 식당 등 One-Stop-Culture-Cent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또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당대예술관은 대만의 젊은 작가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실험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고, 수시로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옆 골목 초등학교 건물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고, 낡은 도시 타이베이는 일본식 건물이 여전히 즐비하다. 중국과 일본문화가 묘하게 혼재하는 곳이 대만이다. 그리고 원주민 문화도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다.

시내 중심에서 한참을 벗어나 국립대만대학 인근에 부산 감골마을처럼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보장암이라는 사찰주변으로 예술가들이 살며 가꾸어 온 마을이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촌이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대충 담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집과 집을 연결하고 지나칠 정도로 가느다란 통로가 있는 희한한 구조의 마을이다.

용산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야시장은 대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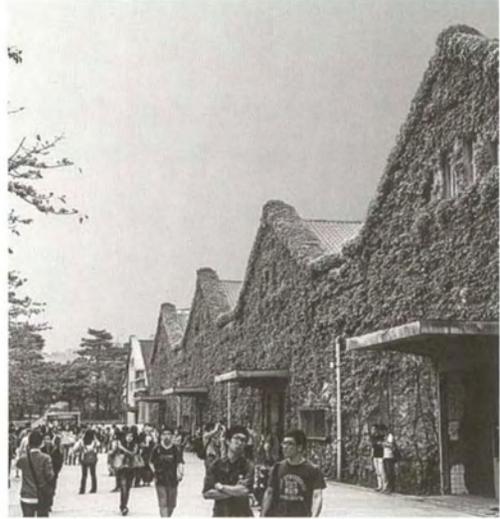
중국 상해 예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해옛거리는 규모도 규모려니와 거대자본과 프랜차이즈가 지역 상인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존하는 풍경을 연출한다. 대만 저우펀도 마찬가지다.

하릴없이 사라지는 건축물들이 지역의 역사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삶이 공존하고 저마다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지방문화원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자 했다.

## 1. 대만 타이베이 화산문화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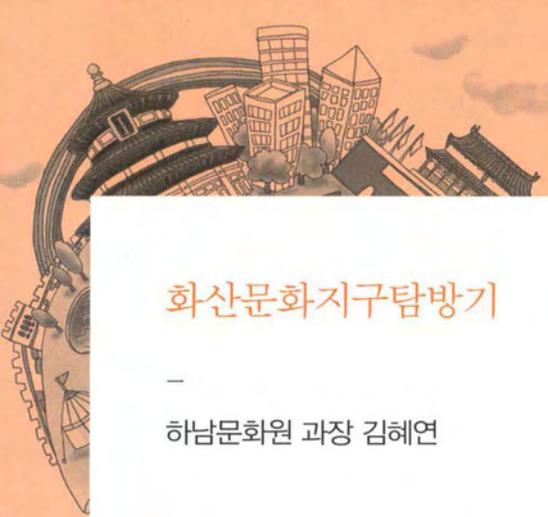
타이베이의 감성적인 공간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화산문화지구”. 짙은 도심의 한복판에서 낭만을 만끽하며 걷기에 이만한 장소가 또 있을까 싶다.

1914년 건축된 이 건물의 용도는 본래 양조장이었다. 그러다 그 기능이 종료된 후 폐 건물로 방치되었던 것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남길 것은 남겨두는 의도적인 리모델링을 실행한 탓에 양조장이었던 당시의 흔적과 세월이 헐거워진 벽면들이 건물 내부의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살리고 없앨 것의 구분 없이 오로지 깨끗하고 새롭게가 미덕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일 지도 모르겠다. 클래식한 건물이 빚어내는 운치 있는 풍경에 웨딩촬영은 물론 영화나 광고의 단골배경이 되고 있다.





## 화산문화지구탐방기

하남문화원 과장 김혜연

6월25일 대만여행 삼일째

어느덧 대만의 덥고 습한 날씨에 적응한 듯 한 삼일째! 화산문화지구에 도착을 하였다. 버스에서 내리자 강렬히 내리쬐는 햇빛에 머리가 땡~ 그러나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건물의 모습에 나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이곳에서 문화탐방을 자유롭게 하고 중식을 각자 해결해야하는 미션 아닌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단체여행의 편안함과 규칙적인 틀에 매여 있던 나에게 좀 더 흥미로운 관심으로 다가왔다. 전체적으로 첫인상은 낯고 한산한 느낌이었다.

1914년 양조장이었던 이곳은 1987년 문을 닫을 때까지 대만의 가장 큰 양조장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 후 방치되었던 건물을 2007년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지구로 탈바꿈 했다고 한다. 그리고 창고건물은 일반인 동아리, 학생, 예술단체에게 임대해 주고 패션쇼, 연극, 전시, 공연, 영화관람 등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활기차게 열리고 있다. 폐 건물로 방치되었던 것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낯고 옛스런 건물을 곳곳에 남기고 부분적인 공사만을 하여 발걸음의 진행과 함께 나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6월의 푸르름을 가득 품은 건물의 외벽에는 담쟁이덩쿨로 도배가 되어 성능이 썩 좋지 않은 나의 디카에도 전문가솜씨의 사진을 가득 담을 수 있었고 어느 곳이나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여행의 실질적인 마지막 날 대만의 정서와 풍경을 정리하고 나의 정서적 순화작용을 마무리 하는 공간으로 제격 이었다.

곳곳에서 웨딩사진 커플과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네들의 포즈를 따라 나도 한껏 멋을 부렸다. 대만을 여행하며 둘러보다 보면 낡고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약간의 공사를 하여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쓰러질 것 같은 건물은 위험해 보이고 새로운 건물에 익숙한 나의 눈에는 하찮은 건물로만 치부되었지만 화산문화지구의 건물을 탐방한 후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새로운 건물들은 좀 더 깔끔하고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지만 진득한 오래된 숙성의 맛이 없는데 반해 이곳의 느낌은 오래되고 저 오래된 1900년대 초반의 산업화의 물결 속에 내가 소속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마 우리나라의 인사동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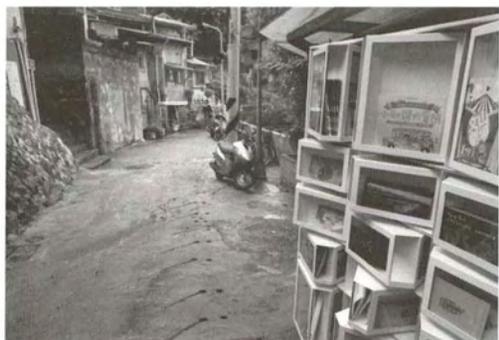
옛것을 보존하고 현대화 하여 우리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문구일 수 있다. 대학교 다닐 때 인 것 같다.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를 했다. 경복궁의 시야 확보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 당시에는 선택에 집중을 했지만 건물은 한번 짓거나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당시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나는 건물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이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어찌 할 수 없는 역사적 숙명처럼 느껴졌다. 나의 반대는 그 당시 반대 의견과 비슷했다. 후대에 남겨 우리의 우울하고 참혹한 역사를 후대에게 알리자는 것에 찬성을 했다.

만약 지금 그 건물이 있었으면 독도영유권 문제와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아베정권의 과거를 지우개로 지운 듯 한 행보에 달걀이라도 한판 던질 수 있는 화풀이 대상이라도 좋지 않았을까? 일본인중고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자기네들이 점령하여 통치하던 집무실로 아무리 자부심을 갖은 들 우리학생들과 후대에게 뼈아픈 역사 바로세우기를 그 자체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잠시 격양된 감정으로 살짝 옆으로 갔지만 철거는 아무 때나 가능하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교훈을 보기 좋게 준 교훈이 아닌가 한다.

## 2. 대만 보장암 국제행위예술처



보장암 국제예술촌은 대만이 해방이 된 후 1960년~70년대 사이에 산 기슭의 경사로를 따라서 불법 이민자들의 판잣집들이 지어져 형성된 마을로, 한 때는 철거될 뻔 하였으나, 마구잡이로 지어진 이 판자촌이 독특하게 타이페이 현대식 건축물과 어우러져 있어 주민들의 철거작업 반대로 인하여 보존된 마을이다. 2004년에 마을 전체가 역사 건축물로 지정되어 예술가들이 하나 둘 작업실을 차리고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특한 분위기로 타이페이 여행시 꼭 가봐야 할 명소로 뉴욕타임즈에 선정되었다.



### 3. 중국 상해 옛거리 그리고 예원

상해 옛거리는 마치 100년전 상해의 북적되는 시장 한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상해 옛거리는 예원상업관과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쇼핑, 오락, 문화전시를 하나로 모은 특색있는 거리이며 또, 중국 전통적 향취를 가지고 있는 관광지이다.

역사적으로 묘전대가(廟前大街)라고 불리면서 상해의 초기 형태의 전장(개인금융기관)과 금은방, 주점, 찻집, 극장, 큰 상점 등이 들어서서 소동문(小東門), 성황묘와 예원지역을 잇는 복도식 거리를 이루고 있다.

200년전 중국 옛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예원은 중국에 온 만큼 중국스러움을 한껏 느껴 볼 수 있고 완공하는데 무려 18년이나 걸린 단순히 나무만 가득한 정원이 아니라 북경의 이화원을 모티브로 하여 40여 개의 정자와 누각 등이 있는 궁궐 같은 중국 정통 정원이다.

예원은 명나라 관료였던 판원완(반윤단)이 부모를 위해 1559년에 착공해 18년만에 완성한 중국식 정원이며 주인이 몇 차례 바뀌다 아편전쟁으로 영국군에게 유물을 약탈당하고 태평천국군이 점거해 기지로 쓰이는 등 한때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1956년 복구작





업이 시작되면서 일반에 공개돼 상하이의 인기관광지로 자리매김했고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출구 가까이에 있는 '위딩룽'은 예원 최대 볼거리 중 하나로 무수히 많은 조그만 구멍 중 제일 위의 구멍에 물을 넣으면 모든 구멍에서 물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구경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100여년 전 예원의 일부였던 주변 지역도 볼만하다. '예원상창'이라 불리는 곳으로 상하이 최초의 변화가로 과거에 시장이 열렸던 장소다. 지금은 전통간식, 장신구, 도장, 옥, 차, 다기, 치파오(중국계 의상) 등 전통적인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청대의 골목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상하이에서 가장 중국다운 곳이라 알려져 있다.

#### 4. 대만 용산사와 화시지에 야시장 문화



용산사는 청 건륭3년에 지어졌으며, 사찰에는 주신을 복건성 진강현 안해향 용산사의 관세음보살과 함께 모시고 있으며, 삼진사 합원의 전형적인 전통 건물로 앞에는 용의 기둥 한 쌍과, 중간에 용 기둥 4쌍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사찰의 지붕은 오리고 붙이는 전통 예술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색체의 유리와 자석으로 장식 되었으며, 용, 봉황, 기린 등의 길한 동물로 더욱 특색을 주었다.





화시지에 야시장은 용산사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수많은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찾는 명소중의 하나이다. 화시지에 야시장 입구는 중국전통 건축양식으로, 붉은색 궁둥을 걸어놓아 무척 특색이 있다. 화시지에 야시장은 먹거리 위주의 시장으로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가지가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즐비하다. 특히 뱀, 자라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어 먹거리의 특색을 한층 높여주며, 밤이 되면 뱀을 잡거나 뱀싸움을 보여주는 공연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분위기는 떠들썩하며 타이완 사람들의 열정과 활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 5. 저우편



저우편이라는 이름은 9가구의 농가가 살고 있었던 이곳으로 조달되는 생활물자를 9개로 나뉘었던 것에서 유래됐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한때 금광 채굴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로 심야에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광부들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가게들이 많았다. 금이 고갈되어 열기가 식었지만 영화 비정성시와 온에어 드라마에 촬영 장소로 인기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산의 급경사면을 끈계 올라가는 계단 마을에는 화려했던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건물 및 커피숍, 기념품점이 많아 항상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prologue **part 5** epilogue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원형사례연구  
해외연수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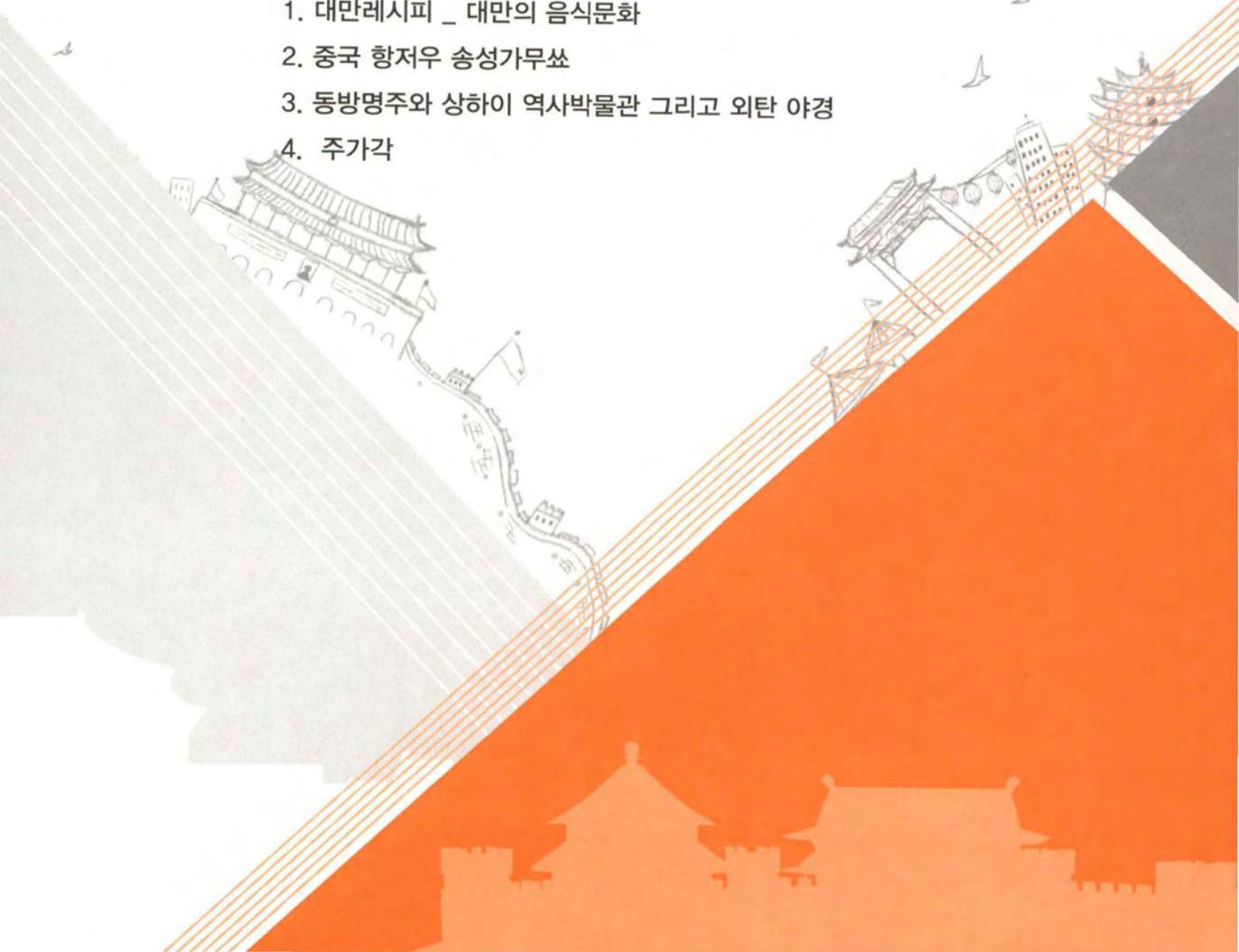
## Part 05

---

# 문화원형의 관광 상품화, 공연컨텐츠화 사례를 통한 지역 문화원형 활용 방안 모색

---

1. 대만레시피 \_ 대만의 음식문화
2. 중국 항저우 송성가무쑤
3. 동방명주와 상하이 역사박물관 그리고 외탄 야경
4. 주가각



## 문화원형의 관광상품화, 공연콘텐츠화 사례를 통한 지역문화원형 활용방안 모색

문화원형에 대한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2012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하여 <문화원형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로 향후 경기도 각 지방문화원이 문화원형을 개발, 콘텐츠화하기 위한 분류를 했다.

첫 번째는 역사문화인물, 두 번째는 역사문화유적(건물 등 포함), 셋째는 자연환경, 마지막으로 지역의 민담, 설화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음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획의 마지막 목표는 각 지역의 문화원형이 어떤 형식으로 문화자원이 되어 지역 문화를 만들고 있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원 차원의 지역문화원형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평택문화원 최실비 선생의 글처럼 대만은 향기가 있다.

사람의 냄새, 취두부의 매케한 냄새, 각종 향신료에서 발신하는 문화가 있다. 향기로 나타내는 문화이다.

중국 향저우 송성가무소는 현대 무대 연출의 극대화를 보여준다.

내용은 특별하지 않다. 중국의 전통의상, 무예, 노래 등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무대 규모나 화려함이 압도적이지만, 끝나고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연이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지방문화원이 발굴, 조사, 연구한 성과로 충분한 고증을 통해 지역예술가가 결합하여 각 지역마다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 소재는 충분할텐데,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1. 대만 레시피 \_ 대만의 음식문화

평택문화원 최실비

### 숨결 따라 걷는 길

대만의 풍경을 보기 전에 느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대만의 향기이다. 대만은 씩씩하면 서도 톡 쏘는, 진한 향신료 냄새가 가득하다. 어느 나라가 그러하듯, 그 나라의 향기에 는 무구한 역사의 흔적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대만의 향기 역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이 가득 담겨 있다.

일찍이 '일리 포모사(아름다운 섬)'라고 유럽인이 불렀던 대만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 인 지리적 위치, 아열대와 열대에 걸치는 기후에 높은 산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민족의 음식들이 융합되어 독특한 음식문화를 발전시켰다. 대만은 전 체 인구의 2%를 차지하는 원주민, 푸젠성 등에서 비교적 일찍 대만에 도착한 사람들, 1945년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건너온 중국 각지의 사람 등으로 인구 구성이 다양하 다. 광활한 대륙의 여러 지방에서 이주해온 이들 덕분에 대만은 중국의 여러 지방의 문 화가 골고루 섞이게 되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대만은 중국의 축소판이라는 말처럼 중국의 갖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윈난 등 중국 대륙의 다채로운 요리를 두루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많다. 요리 방법과 식품재료의 처리 과정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중국 각 지방 의 대표되는 요리들을 최고의 맛으로 그것도 저렴한 값에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비슷하다고해서 같은 건 아니다. 향신료가 강하게 쓰이고 다소 느끼한 중국의 대륙음식 과는 달리, 섬나라인 대만은 간이 심심하고 담백하다.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를 주재료 로 하며 상큼하면서도 달고 신맛이 특징이다.

## 음식 풍경

대만에서는 하루 세끼를 모두 밖에서 사먹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외식문화가 대만에서 발달한 이유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여성의 권익이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의 집에는 부엌이 아예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덕에 대만은 먹거리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

대만의 음식은 주로 '식사를 차려 먹는다'기 보다는 서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포장음식과 즉석식품이 많다. 대만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은 우리나라의 편의점과는 다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즉석식품을 찾는 고객들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만의 대도시에는 대부분 야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야시장은 적어도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노점상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야시장으로 형성됐다. 청나라시대부터 푸젠성과 광둥성에서 바다를 건너 대만으로 이주해온 한족들은 황무지를 개간할 시기에 평안을 빌기 위해 너나없이 도교사원을 세워 신을 모시는 행사를 열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대만사람들에게 고사찰 옆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은 마치 신불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것 같은 오래되고 특별한 정신적 맛이 담겨있다.

대만의 야시장 점포의 배치는 설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옷가게 옆에 국수가게, 장난감가게 옆에 한약점포 등이 무질서하게 위치해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야시장의 특색이다. 온갖 종류가 함께 있어 곳곳이 놀랍고 재미있다.

한껏 구경을 하다가 무엇을 먹으려면 무더운 환경 속에서 고생스럽게 줄을 서야한다. 하지만 이것이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음식을 받아드는 순간의 성취감 때문이다. 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보다는 '먹는 것'에 있는데, 이는 야시장 구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많은 야시장들이 유명한

것은 특유의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분과 계란으로 부친 굴전 위에 케첩소스를 얹어 먹는 '굴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취두부', 생닭을 망치로 두드려 넓게 튀겨내는 '지파이', 뱀을 죽여서 만든 갖가지 요리들 등 스테미너 음식에서부터 디저트까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이 음식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음식의 다양함은 대만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런 음식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의 큰 음식점도 주목할 만하다.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쁜 푸짐한 음식들이 가득한 큰 음식점에서는 서양식 코스처럼 음식이 순서대로 나온다. 먼저 쌀밥과 요리를 먹고 탕은 나중에 먹는데, 차거나 마른 음식에서 따뜻하고 국물 있는 음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음식점의 다양한 음식 중에서도 너무나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샤오롱바오'이다. 샤오롱바오는 만두피가 얇고 고기가 잘게 다져져 육즙과 함께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 고기 육즙이 만두피 아래에 가득 고여, 이럴 함께 즐기는 것이 모미이다. 두 번째는 '휘귀'이다. 휘귀는 매콤하고 얼큰한 마라탕과 시원하고 담백한 야채탕이 반반씩 나뉘어, 그 국물에 각종 해산물과 야채, 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끓여 먹는 대만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종류와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는 대만의 '차'도 주목할 만하다. 일찍부터 차의 효용성에 눈을 떠 정부의 지원 하에 차나무 수종 개발이나 제다법, 포장 및 수송 운반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도 한 몫을 했다. 아열대기후의 북부지역과 열대기후의 남부지역은 모두 연평균기온이 20℃를 넘고 연간 평균 강우량은 2,515mm으로 차 재배에 매우 적합하다. 이러한 배경과 환경에서 수준 높은 발전을 이루었기에 대만의 차는 그들의 생활 속 어디서나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깊이 자리잡아 '차 문화'가 되어 그들의 생활의 미학을 담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대만은 '식도락가의 천국'이라 부를 수 있다. 대만의 요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귀중한 문화재와 아름다운 자연들과 더불어 그들이 아끼는 관광자원이다.

## 2. 중국 항저우 송성가무쇼

중국의 3대 빅쇼(심천의 야외쇼, 상해쇼, 항주의 송성가무쇼)중 하나



송나라 성안에서 벌어진 무희들의 춤과 노래를 극화한 쇼이다.  
장엄하고 화려하기로 세계적인 쇼이다. 남송의 역사와 풍류를 같이 볼 수 있다.  
쇼를 공연하는 극장은 송대의 문화를 재연하는 송대 거리 안에 있다.  
송나라 거리를 감상하며 극장으로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쇼는 하루 다섯 번 한 시간씩 한다.  
극장 초입에서 벌이는 마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한다.  
송성 쇼의 내용은 원시인간의 생활과 고대중국의 생활,  
악비장군의 치적 (송나라 금나라 전쟁) 현대 중국의 발달,  
이웃 나라의 문화, 중국의 미래상을 극화하여 가무로 엮은 쇼이다.  
우리나라가 각 도시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가질 수는 없을까?

### 3. 동방명주와 상하이 역사박물관 그리고 외탄 야경



동방명주탑(중국어 간체: 东方明珠塔, 동팡밍주타[\*])은 상하이에 있는 TV탑이다. 정식 명칭은 동방명주 TV탑으로 황푸 강변 푸둥 신구의 루자쭈이에 위치하고 있다. 반대 쪽은 와이탄이다.

동방명주탑은 467m로 1991년 7월 30일에 착공하여, 1994년 10월 1일에 완공되었다. 현재 101층의 상하이 세계금융센터가 492m로 상하이 내에서도 1위 자리를 내주었으며, 이리 88층의 366m의 진마오 타워가 그 다음을 따르고 있다. 동방명주탑은 세계에서 네 번 째로 높은 타워(Tower)라고 한다.

동방명주 지하의 역사박물관은 파란만장한 상하이 백년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전시관 안에는 각양각색의 외국인 주거지 모습과 예전 화교와 서양인들이 함께 생활했던 조계지, 동서양의 양식이 조합된 석고문 등이 진열되어 있다. 실제와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공간의 디테일까지 잘 정돈된 전시공간이다.

상해는 1300만명의 인구에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한 도시  
란다. 지하철도 서울은 9호선까지 있으나 상해는 13호선까지 있고, 면적 또한 서울의 8  
배다.

중국은 56개 다민족 국가이지만 93%가 한족(漢族)이고, 나머지 7%가 55개의 소수 민  
족이다. 소수민족의 경우 2자녀도 허용하거나 벌금으로 대치하기도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구정책을 쓴다.

황포강 유람선상에서 들어오는 시야는 그야말로 황홀한 불야성이다.

우선 황포강의 동편인 포동(浦東) 방향(外灘-Waitan)의 고풍스런 야경이다.

이처럼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근대식 빌딩과 현대식 빌딩이 쌍벽을 이루며 몸통 자랑하  
듯 마주 서서 찬란하게 밤을 밝히는 개방도시의 불야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4. 주가각

'수향마을'로 중국의 베니스라 불리는 곳.



그림52. 주가각 방생교 부근



그림51. 주가각 전경

주가각은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수향마을로 1700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수향마을은 물가에 조성된 물의 도시라는 뜻으로 마을이 수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수로를 따라 상업시설이 형성된 곳.

주가각은 수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 수로를 건널 수 있는 다리들이 있다. 가장 유명한 다리는 바로 '방생교'라고 한다.

“생명을 살려주어 덕을 쌓는 다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 다리 밑에서는 방생만 하고 절대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고요하고 잔잔한 골목의 예술품을 둘러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중국 상해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으나 지금도 허름한 집에 수 백 가구가 살고 있으나, 집과 집 사이의 작은 개울을 매립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그것을 관광자원화한 사례이다.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도 같은 사례로 보인다. 다만 도심지인 것과 도심 외곽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자&노자 〈道에 탄지걸기〉 (김영사 강신주 지음)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년)

야생의 사고 (한길사, 레비스트로스 2011)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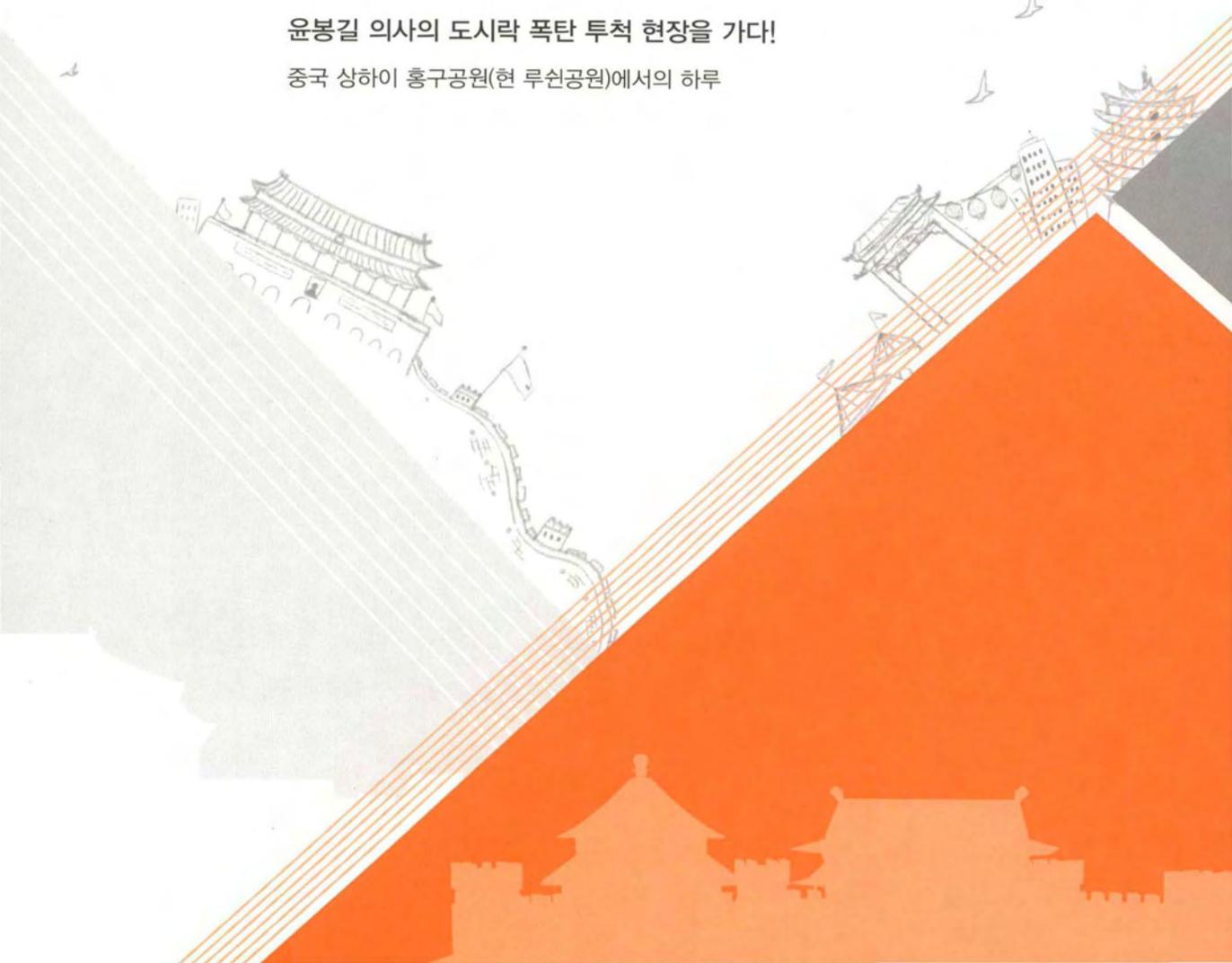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블로그 수프와 나나의 지구별여행 〈대한공시대〉 <http://blog.naver.com/PostView>

## Part 06

# 특별한 기억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 현장을 가다!  
중국 상하이 홍구공원(현 루신평원)에서의 하루



요즘 뜨는 영화 암살을 보았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33년이다, 그 일년전인 1932년의 역사적 사실을 영화에서도 알게 된다. 또 윤봉길 의사, 도시락폭탄이 언급된다.

광복 70주년. 홍구 공원은 지금 노신공원이다.

이름이 변경되었다. 홍구 공원은 윤봉길 의사 의거현장으로 유명한 역사적 장소이다.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하여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현장을 찾아 참배하였다.

루쉰공원(노신공원)은 노신의 묘, 노신기념관등 사실 중국인들에게는 루쉰을 더 기리는 장소이고 많은 중국인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여기 저기 춤을 추고, 색소폰 등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려 많은 이들이 즐기고 쉬는 공원이다. 이곳의 작은 장소에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우리의 의거현장이 있어 다행이다.

입구에서 작은 한글이 함께하여 공원 안에서 찾아 들어가야 한다. 매원이라는 정원을 만들어 루쉰 공원은 무료인데 이곳에 들어가려면 15위안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 매원에 있는 매헌 기념관을 둘러보고 의거현장 표지석에서 참배한다.





그림54. 홍구공원 윤봉길기념관에서 묵념하다



그림55. 홍구공원 윤봉길기념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원형사례연구  
해외연수결과보고서

Part 07

---

# 함께 한 기록들

---

PHOTO









prologue

part 8

epilogue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원형사례연구  
해외연수결과보고서



Part 08

---

# 함께한 사람들

---

함께한 사람들  
참가자 명단



## 함께 한 사람들

연수단장 |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기획운영 |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운영지원 | 유지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팀장

## 참가자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회장

김봉식 안산문화원장

김준경 동두천문화원장

이용석 과천시문화원장

김문영 여주문화원장

박기준 광주문화원장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장재찬 양평문화원장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양윤택 포천문화원장

박성복 양주문화원장

고정석 화성문화원장

방성호 과천시문화원

조성경 구리문화원

허혜경 포천문화원

박명희 용인문화원

김승미 의정부문화원

김혜연 하남문화원

김영희 양평문화원

설윤옥 동두천문화원

주광원 수원문화원

윤종준 성남문화원

오경영 광주문화원

신현분 수원문화원임원

임관욱 안산문화원임원

이명숙 동두천문화원임원

윤옥섭 과천시문화원임원

이영숙 여주문화원임원

오세전 광주문화원임원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박계일 군포문화원장

김만중 가평문화원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유지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팀장

박현미 경기도문화원연합회기획팀장

권태일 김포문화원

정희진 광명문화원

이미경 이천문화원

김혜라 양주문화원

신미숙 가평문화원

정민정 남양주문화원

최실비 평택문화원

오경미 파주문화원

이종남 광주문화원



# epilogue

---

## 이제 다시 지역이다!!

---

중국 상해/항주/대만 연수 합평회





## 에필로그

중국 상해/황주/대만 연수 합평회

## 우리가 해외에 함께 간다는 것은...

-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외 연수의 성과가 결국 지역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다. 매년 해외로 연수를 다니지만, 연수를 연수로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연수 마지막 날에는 토론회가 되었건, 합평회가 되었건 간에 연수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 내가 본 것과 상대방이 본 것은 시각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보고 느낀 것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해외 연수라는 것이 단순히 관광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치열하게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함께 먹고 자면서 친해지는 것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일체감이 형성된다.
- 그렇다. 이런 일체감은 경기도 전 지역에 우리를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단히 든든한 일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

## 해외 연수지역 선정과 의미에 관하여...

- 이번 장소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보다 일찍 장소 선정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하 현장을 방문한 것은 오랜 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제는 루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윤봉길 기념관이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관리나 보존에 신경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 대만의 지우펀은 사실 접근성도 떨어지고 제반 인프라도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대단히 비쌌다. 하지만 바다와 어우러진 자연환경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아름다웠다. 가기 어려운 부분과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곳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 부산의 감골마을이나 동해의 눈골담길도 유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나 지우펀 정도로 개발된다면 얼마든지 지역의 동네와 골목길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 예원과 상하이 올드스트리트는 반드시 가봐야 할 것 같았다. 규모도 규모이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와 지역상권이 어떻게 서로 공생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 다음 연수에서는...

- 단체로 몇 십 명이 이동하려니, 많은 것을 보기 힘들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부터 조를 나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중간에 만나서 서로 보고 느낀 것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좀 힘들었다. 좀 여유 있는 일정으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느낀 것을 심층적으로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다.
- 실제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 단체로 갈 때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재단 지원 구조가 어떤지 모르지만 소규모 연수단이 파견되어 깊이 있는 탐방과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연수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 China



2015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원형사례연구  
해외연수결과보고서



# Taiwan